

밀레,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09 참가

- 밀레 하이브리드 청소기, 에코라인 세탁기 등 친환경 가전제품 전시
- 밀레 공동회장 및 고위경영진, 해외법인장 등 대거 참석 예정

독일 명품 가전 밀레는 오는 9월 4일부터 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09'에 참가한다.

밀레는 'IFA 2009'에서 '에코(ECO)'라는 주제 아래 전체 생활가전전시공간 10% 규모인 3,000㎡의 전시공간을 활용해 소비자 및 딜러를 위한 2개의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IFA 2009'에서 밀레는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청소기, 에너지 소비를 40% 이상 줄인 에코라인 세탁기와 의류건조기, 8리터의 물로 14인분의 식기를 세척할 수 있는 식기세척기 등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약한 친환경 제품과 대형 세탁장비 등 상업용 제품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빌트인 가전으로는 현재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화이트 색상 계열의 전기오븐 및 스팀오븐을 비롯해 쿡탑, 쿠커후드를 전시할 예정이며 전문 유명 요리사들이 직접 요리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고객이벤트 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다.

딜러 공간에서는 창립110주년을 기념해 출시된 유럽전용모델 세탁기Gala GrandeXL등 특별한 제품들을 소개될 예정이다. 이밖에 각 제품 담당자의 철저한 상담은 물론 회의실과 교육공간, 커피를 제공하는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이번 'IFA 2009'에는 공동회장인 Dr. Miele 및 Dr. Zinkann(IFA 가전부문 대변인)을 비롯한 고위층 경영진들과 밀레의 한국법인 밀레코리아 안규문 대표를 비롯해 해외법인장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밀레의 공동 회장인 라인하르트 진칸(Dr. Reinhard Zinkann)은 "이번 'IFA 2009'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밀레의 다양하고 매력적인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방문자들에게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IFA 2009' 참가의 강한 포부를 나타냈다.

이번 49회째를 맞는 'IFA 2009'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쇼(CES)와 함께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로 지난해는 전 세계 63개국 1245개 가전전시업체가 참가했으며 약 21만 5천여명이 방문할 정도로 세계적인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끝)

